

# 언어가 상호의존 본질 말할 수 있나



**원효의 해안-회쟁(3)**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교수

모든 현상과 견해를 '조건 인과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실재와 진실에 부합한다. 현재의 모든 지식 가운데 가장 신뢰도와 영향력이 큰 과학적 지식이 설득력을 갖는 것도 다름 아닌 '검증 가능한 조건인과에 대한 열린 탐구' 때문이다. 그러므로 견해를 조건 인과적으로 파악하려는 태도는 과학과도 공유하는 오래된 합리성이다.

그러나 개인과 집단의 생물학적 이익(생존과 복사에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언어 전략의 오랜 관행은, '견해의 조건 인과적 이해'에 저항한다. 이익을 확보하고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언어 속성인 동일화와 배제를 견해에 적용하고, 견해를 무조건화·절대화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경험을, 오랫동안 체화시켜 왔기 때문이다. 인간의 물질적·정신적 유전자에는, 견해 차이를 동일화와 배제의 승패 문제로 처리하고, 무조건적·절대적 옳음이나 그름으로 확정하려는 충동이, 본능처럼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다.

적으로 맞거나 틀리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부분적·조건적 타당성을 원효는 '일리(一理)가 있다'고 말한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여섯 분의 주장이 비록 모두 불성(佛性)의 실체를 완전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였지만 각각의 맥락에 따라 설하였으므로 각자 일리는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 하문(下文)에 설하기를, '저 눈먼 사람들이 각기 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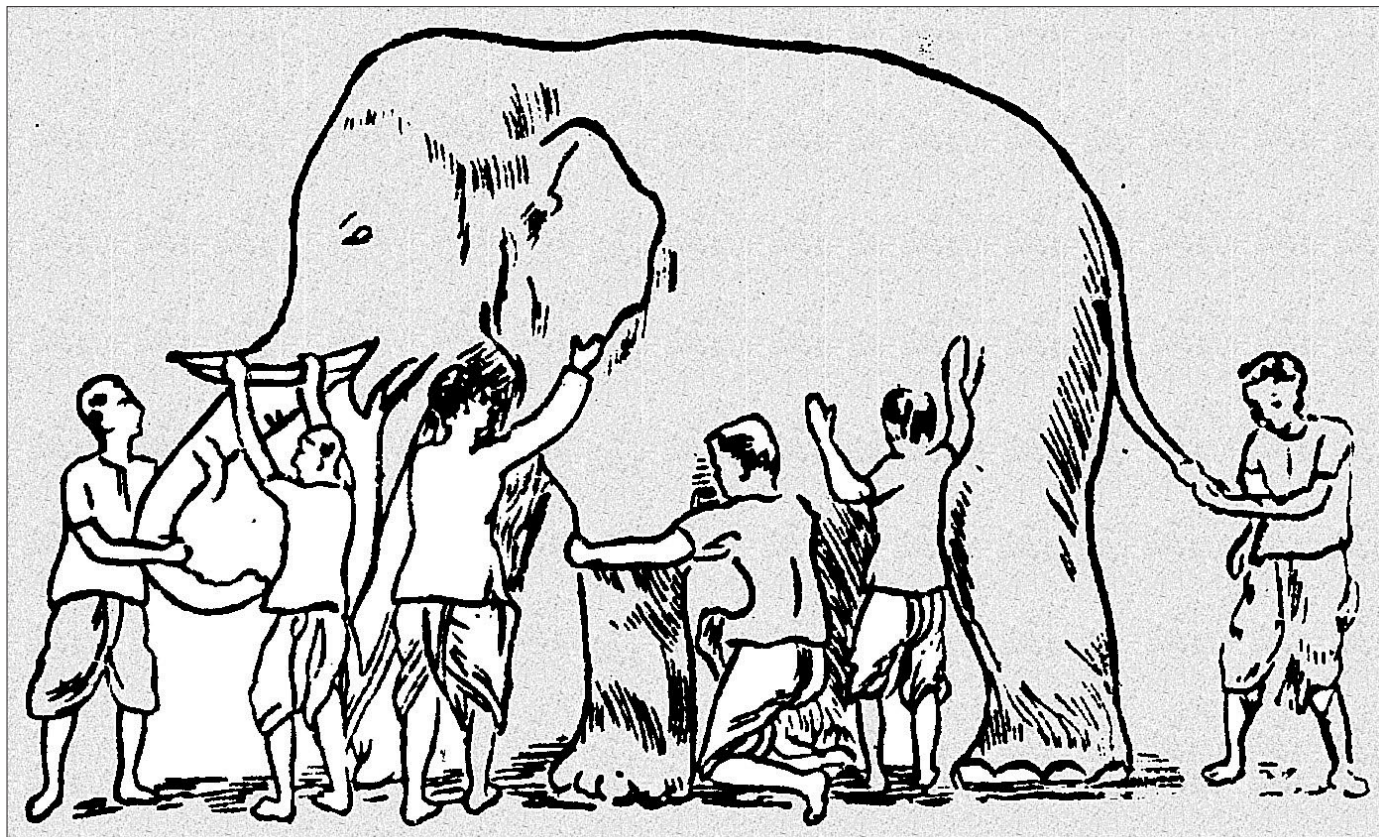
"또한 이 일각(一覺)은 본각과 시각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 본각의 드러내어 이룬다는 뜻(本覺顯成義)이 있기 때문에 진리대로 닦는다(眞修)는 말도 도리가 있고, 시각의 닦아서 이룬다는 뜻(始覺修成義)이 있기 때문에 새로 닦는다(新修)는 말도 도리가 있다. 만약 한쪽에 치우쳐 고집한다면 곧 미진함이 있게 된다."

견해를 조건 인과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은, 언어의 '동일화와 배제' 속성, 무조건화·절대화의 충동이 초래하는 '언어 본질주의'나 '절대적 규정'의 환각에서 풀려나게 하여, 언어의 실용적 유연성을 극대화시켜 준다. '언어 본질주의'란 언어에 해당하는 불변의 동일한 내용이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관점이다.

불변의 형식이 있지 않느냐고 말할지 몰라도, 그 논리와 추상을 발생시킨 경험세계는 불변의 본질이 아니다. 논리를 수립하고 구사하는 인간도 불변의 본질은 아니다.

일체의 존재와 현상은 가변적이고 상호의존적이다. 언어의 기초 소재인 그 어떤 개념도 '그것 아닌 것'에 기대어 성립한다. '책상'은 독자적·절대적으로 존재하는 본질·실체가 아니라, '책상 아닌 것'을 조건으로 그것에 기대어 성립한다. 본질주의나 실체주의가 설정하는 불변·독자·절대의 본질이나 실체는 그 어디에도 없다.

만약 언어가 지시하는 불변의 독자적 본질이 있다면, 언어 용법은 고정적이고 절대적 규정도 가능할 것이다. '장미'는 '장미'로만 불려야 하고, 견해나 이론적 규정도 절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장남들이 코끼리를 만지는 비유는 자신의 견해만을 집착하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교훈으로 던진다. 갇힌 언어로 보여지는 환상들을 부수고 '조건 인과'를 파악한다면 불화의 정론은 화해의 화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절대적 실체는 존재하지 않아  
갇힌 언어 떠나 인과 파악하면  
쟁론을 '화해의 화쟁'으로 이끌어

쟁론의 당사자들은 자기 견해와 상대의 견해를 조건 인과적으로 이해한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견해를 성립시키는 조건들의 인과적 연관을 사실대로 포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견해의 옳음과 상대 견해의 틀림을 입증하기 위해 유리한 조건인과들을 자의적으로 선택한다.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이유를 채집하는 태도는 그 전형이다. 원효가 견해와 이론의 문(門) 구별을 통해 '불통의 쟁론'을 '소통의 화쟁'으로 바꾸려 한 것은, 인류의 오래된 '동일화와 배제, 무조건화와 절대화'의 언어 사유의 관행을 치유하려는 행위였다.

견해의 차이를 조건 인과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부분적 타당성'이 눈에 들어온다. '~한 조건에서는 타당하다'거나 '~한 조건에서는 부당하다'라고 하는 '조건적 타당성'이 포착되는 것이다. '무조건 맞다'거나 '다 맞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

끼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과 같아서 비록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얻지는 못하였지만 코끼리를 설명한 것이 아님은 아니다'고 하였다. 불성을 설하는 것도 이와 같아서 여섯 가지 주장이 곧 맞는 것은 아니지만 여섯 가지 주장을 떠난 것도 아니다."

"이 두 주장에 모두 도리가 있다. 그 까닭은 열반과 깨달음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기 때문이다. 차이의 측면에서 말하면, 깨달음은 과위(果位)로서 능히 증득하는 덕에 있으니 사성제의 도제(道諦)에 속하고, 열반은 과위에서 증득하는 것으로서 멸제(滅諦)에 속한다. 공통의 측면에서 말하면, 과위인 도제도 열반이고 과위에서 증득한 진여 역시 깨달음이다."

예컨대 '책상'이라는 명칭 안에는 책상이 책상있게 하는 불변의 동일한 본질이 있고, 마찬가지로 걸상에는 걸상의 본질이, 장미꽃에는 장미꽃의 본질이, 갑들이와 갑순이라는 명칭에는 각각 고유한 불변의 본질이 독자적으로 있다고 간주하는 시선이다.

만약 언어에 해당하는 불변의 고유한 본질이 있는 것이라면, 언어의 속성인 동일성과 배제성은 실재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언어에 해당하는 그 어떤 내용에서도 경험 가능한 불변의 독자적 본질을 발견할 수가 없다. 언어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존재나 현상에서도 경험 가능한 불변의 독자적 본질은 없다. 수학이나 논리 같은 추상적 범주에서는

그러나 불변의 독자적 본질이나 실체는 실재하지 않는 허구다. 언어적 환각일 뿐이다. 그 어떤 명칭과 명제 및 견해도 '유동하고 의존하는 조건들에 의해' '조건 인과적'으로 성립한다는 점을 수용할 수 있다면, 본질주의·실체주의의 허구를 깨뜨릴 수 있고 언어 본질주의와 무조건적·절대적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때 주어지는 선물은, 언어 채택과 구사의 실용주의적 유연성과 탄력성 및 개방성이다. 특정한 언어 용법과 규정에 갇히지 않고, 조건 인과적 진실에 부합하고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실용주의적·탄력적·개방적 언어 구사를 통해, 불통과 불화의 정론을 소통과 화해의 화쟁으로 바꾸는데 강력하게 기여한다.



행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 게으름은 병이다

부처님이 열반(涅槃)에 드실 때 마지막 말로 남긴 말씀이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였다. 진리의 등불로 스승을 삼고(法燈明), 마음의 등불로 스승을 삼아(自燈明)는 말씀과 함께.

수행승들에게 있어 게으름은 병명이다. 수행승일수록 부지런해야 한다. 잠을 멀리하고 일찍 일어나야 하며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주어진 소임에 충실해야 한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一日不作) 하루 먹지 않는(一日不食) 정신이 승가(僧伽)본연의 갖추어야 할 덕목일 테니까.

몸만 부지런히 움직이는 게 아니다. 마음 속의 번뇌타자를 위해 끊임없이 털고 쓸어나야 한다. 신발도 바르게 벗어 놓아야 하고, 밥그릇도 말끔히 씻어 먹어야 하며, 앉아 있을 때나 걸을 때나 생각을 모아 간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이상아릇한 부끄러운 풍토가 자리매김해 그 들레를 넘쳐가는 느낌이다. 큰 사찰이든 작은 사찰

##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다

사람은 동물이다. 언어와 문자를 쓰며 미소 짓는 게 다를 뿐이다. 인간 뇌(腦)의 93~95%는 지극히 동물적이라는 게 학계(學界)의 정설(定說)이다. 먹거리리를 보면 먹고 싶고, 이성(異性)을 만나면 짝짓기를 생각하며, 이익을 위해서는 싸울 준비부터 갖춘다는 것이다. 강자(強者) 앞에서는 고개 숙이거나 꼬리를 내리고, 약자(弱者) 앞에서는 으르렁거리듯 냉소를 짓거나 거만을 떠드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지극히 사회적인 동물이어서 패거리 짓기를 좋아하고 배반과 충성을 손바닥 뒤집듯 즐긴다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윤리와 도덕, 그리고 질서와 신앙마저 자기 이익, 자기만족 쪽으로 기울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여야 하며, 앉아 있을 때나 걸을 때나 생각을 모아 간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물론 일부의 성직자, 철학자, 사상가, 학자, 예술가 등의 뇌(腦)의 구조는 5~7%에서 상당 조정되어 감성(感性)보다 이성(理性)쪽으로 기울는 경우도 없진 않을 터이다.

## 수행승에게 게으름은 병이다 자연이 병들면 사람도 병든다

이든 도심(都心)속의 포교당이던 주지 직책을 맡게 되면 끼니 때마다 독상 차지가 정례화 되어 있다.

승복에서 속내의 양말에 이르기까지 공양주나 신도들이 빨아주고 다려준다. 거기다가 법당 청소도 신도 몫이요, 도량 청소는 부목 처사 담당이다. 신도들이 사찰에 와서 주지스님께 큰절을 올려도 주지스님은 고개나 손만 까닥하거나 앉아서 큰절을 받는다.

어디 그뿐이라. 승려 된 게, 그리고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대개는 반말을 즐겨 쓴다. 웃기는 배경이, 배워먹지 못한 작태가 주지라는 허명(虛名)에 가려 당연시하게 일반화 되어 가고 있다.

게으름은 마음가짐과 행동 자세에만 그치는 게 아니다. 간디의 아힘사(Ahimsa) 정신이 비폭력에만 한정된 게 아니듯이.

스님은 스님다워야 스님이다. 청소도 빨래도, 그리고 공양주 보살을 수고스럽게 하지 말고 끼니때마다 신도들과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주지스님을 보고 싶다.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는 부처님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그런 건 하나 사람은 누구나 (주홍글씨)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베이트리체를 찾아 헤매는 '단체'도 될 수 있고.

사람은 또한 자연의 일부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철따라 초목의 모습이 바뀌듯이 사람 역시 철따라 기후 변화에 따라 옷을 갈아입는다.

자연이 병들면 사람도 병들게 되어 있다. 자연 환경이 파괴되면 사람의 감성(感性)과 이성(人性)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환경 훼손은 자연 파괴로 이어져 사람의 주거 공간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므로 자연보호는 사람 보호이며 환경 보존은 인간 생활의 보존을 의미한다. 내가 너를 소홀히 하면 너도 나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사람은 누구나 야누스(Janus)적인,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적인 양면(兩面)의 얼굴을 지니고 있다. 인간의 양면성(兩面性)은 선(善)과 악(惡)의 갈림길에서 언제나 방황한다. 쫓겨 타는 곡에서처럼 좌(左)로도 우(右)로도 기울지 않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균형은 언제나 깨어지게 되어 있지만 철들어 죽을 때까지 동물이면서 사람이고, 사람이면서 동물적 행위를 이어간다. 자연의 일부이면서 자연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이다.

#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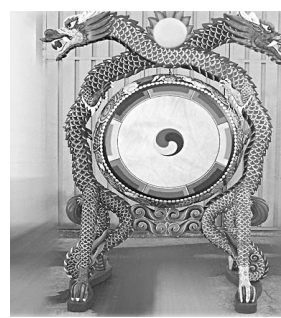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중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